[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3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2026.10.21.(수) 기준(대상 기간 : 2026.10.14.~2026.10.20.)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광명시,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건의(2026.10.20) ····· 1
- 고양시, 온실가스 36% 감축 105개 사업 추진(2026.10.15) ····· 1
- 이학영 의원, 택배기사 탄소감축 부담 전가 지적(2026.10.19) ····· 2
- 충남도, 제10회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2026.10.14) ····· 2

▪ AI 분야 3

- 李대통령, 세계은행 총재와 AI·에너지 협력 논의(2026.10.19) ····· 3
- 산림청, 임업직불제 담당자용 AI 챗봇 서비스 개시(2026.10.15) ····· 4
- 세종시, 부서별 AI 활용과제 발굴·내년 실증 추진(2026.10.20) ····· 4
- 경주시, AI 기반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2026.10.20) ····· 5
- 서울시, 청년 AI 성장권 삭감에 내년 협상 불투명(2026.10.15) ·····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양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내 초·중·고교와 협약(2026.10.15) ····· 7
- 인천환경공단, 그린파트너 연합봉사로 배롱나무 식재(2026.10.20) ····· 7

▪ AI 분야 8

- 건설연·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실증 협력(2026.10.16) ····· 8
- 한전, 기상청과 AI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고도화(2026.10.15) ····· 8
- 서울시교육청, 세종·충남·경북과 '채움AI' 협약(2026.10.15) ·····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대우건설, 탄소저감 콘크리트 탄소감축인증 심의 통과(2026.10.15) ····· 10
- 대전상의, 탄소중립·기후테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026.10.20) ····· 10

▪ AI 분야 11

-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소버린 AI 풀스택 공동 개발(2026.10.19) ····· 11
- 베슬AI, 2030년 GPU 20만장 확보 추진(2026.10.15) ····· 12
- 현대차그룹, 인도에 2032년까지 155억달러 투자(2026.10.14) ····· 12
- 영남이공대, 생성형 AI 취업지원 웹앱 개발 특강(2026.10.20) ····· 13
- 틱톡, AI 광고·틱톡샵 韓기업 성장전략 공개(2026.10.15) ·····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광명시,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건의(2026.10.20)** -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국가사업 신설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국가가 집중 지원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 - 재생에너지와 건물 에너지 전환, 수송 부문 탄소 감축, 시민참여 등 분야별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도시에 국고보조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일본이 2030년까지 100곳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탈탄소 선행지역' 정책을 참고했고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 면담에서는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송 부문 선도 사업으로 소개된 광명시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사업(배달용 이륜차 전기차 전환·충전 기반시설·지역화폐 인센티브 연계)의 전국 확산 방안도 논의됐으며, 김 장관은 실증 모델이 성공하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K-GX 그린 배달 시범사업에 광명시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
	□ **고양시, 온실가스 36% 감축 105개 사업 추진(2026.10.15)** - 경기 고양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건물·수송·폐기물 등 5개 부문 10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으며, 폭염 등 기후위기 현장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연계해 시민 일상에 밀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길 방침 - 시는 지난해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첫 이행 점검에서 2025년 감축 목표량 106만7000t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의 약 98%인 104만8000t을 감축했으며,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참여단, 정크아트 프로그램 등 참여형 사업을 지원 - 올여름 폭염 기간 '쿨링앤클린로드'와 살수차로 도심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유아·초등학생·청소년·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기후환경학교'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대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플라스틱 실천 등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교육을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
중앙정부	□ **이학영 의원, 택배기사 탄소감축 부담 전가 지적(2026.10.19)**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직접 배출량보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탄소 배출량이 4배에 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으며, 정부가 '2035 수송 분야 탄소 배출량 62% 감축'을 계획 중이지만 택배·운송 업계에는 실제 달성 계획이 부재 - 이런 상황에서도 CJ대한통운 측은 전기차 전환을 통한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해 대당 약 2만~3만원 수준의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4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대리점과 계약한 약 1만 500명의 배송 기사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집계 기준도 이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 -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대리점 계약 배송 기사의 경우 통제·운영이 어려워 별도의 감축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 의원은 대기업의 탄소중립 의무가 개별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택배업계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방안을 정비하고 기업이 책임을 다할 틀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지자체	□ **충남도, 제10회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2026.10.14)** - 충남도가 천안시,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공동으로 21~22일 천안시 소노벨에서 '제10회 충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으며, 콘퍼런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논의의 장으로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박수현 지사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장기수 천안시장, 주한 필리핀 대사관, 중국 칭하이성 생태환경청장, 크시슈토프 유즈비크 폴란드 우치공과대학 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도내 기후테크 기업 20곳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 제조, 수전해 수소 활용 기술 등을 공개 - 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국제 기후규제에 선제 대응할 방안과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2017년 첫 콘퍼런스 이후 탈석탄(2017~2020년), 탄소중립(2021~2023년), 산업구조 전환(2024~2025년)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상황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李대통령, 세계은행 총재와 AI · 에너지 협력 논의(2026.10.19)**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하고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 등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한국의 기술력과 성장 경험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 의제 -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AI 허브' 구상을 제시하고 지난달 유엔총회에서도 글로벌 AI 허브 조성 의지를 밝혔으며,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20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을 계기로 방한 - 서밋에서는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맞춤형 '소형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에너지 분야에선 2030년까지 아프리카 주민 3억명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세계은행의 '미션 300'이 협력 접점으로 꼽혀 국내 기업의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산림청, 임업직불제 담당자용 AI 챗봇 서비스 개시(2026.10.15)** -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업무 담당자가 지급요건과 관련 법령·지침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임업직불제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으며, 별도 프로그램 없이 업무전용망인 '임업직불제 업무지원시스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읍·면·동 및 지방산림청 등 일선 담당자에게 보급 -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다양하고 관련 기준도 법령, 지침, 공고·기준 등으로 분산돼 있어, 그동안 일선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했던 만큼 업무 부담을 덜고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AI 챗봇은 담당자가 대화창에 질문하면 임업직불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답변의 근거가 된 참고 문서와 기존 질의·회신 등 유사 사례를 함께 보여주며,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AI 챗봇으로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고 AI를 활용한 제도 개선과 산림행정 혁신을 계속 넓혀 가겠다는 방침을 표명
지자체	□ **세종시, 부서별 AI 활용과제 발굴·내년 실증 추진(2026.10.20)** -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위해 부서별 AI 활용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내년도 실증사업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각 실국이 AI로 개선할 수 있는 업무를 제안하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 우선 3~5개 과제를 선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박민규 주무관이 'AI 행정 리더십 내재화'를 주제로 AI의 행정 활용 방안을 설명 - 조 시장은 AI의 적극적인 업무 도입과 직원들의 활용을 독려하면서도 AI가 생성한 결과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했으며, 이와 함께 최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의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일선 소방관 애로사항을 수렴해 소방청에 건의하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원칙을 준수할 것도 주문
	□ **경주시, AI 기반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2026.10.20)** - 천년고도 경주시가 1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스마트도시 분야 민간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8~2032)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역사문화 자산에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 -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시는 도심 교통난과 주차 문제, 고령화에 따른 생활 안전 및 복지 공백, 기후변화 대응 환경 관리, 체류형 스마트 관광 인프라 등 현안을 종합 진단해 IoT·AI·디지털 트윈 등을 접목한 맞춤형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도출할 계획 - 특히 천년고도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문화재 보존 규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즉각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에 방점을 두며, 시민 설문조사와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전 부서 협업 TF 운영, 전문가 심층 자문 등을 거쳐 계획안을 완성한 뒤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법정계획으로 확정·고시할 방침
	□ **서울시, 청년 AI 성장권 삭감에 내년 협상 불투명(2026.10.15)**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AI 성장권' 사업의 내년도 추진 계획을 묻자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내년 이후에도 기업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변하며 내년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서울시 입장을 표명 - 청년 AI 성장권은 오 시장의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계약해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이며,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에 관련 예산 5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 오 시장은 챗GPT와 제미나이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협상하는 데 성공했는데 기회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추경 통과 후 연말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으나 계약을 앞뒀던 두 회사에 서울시는 더 이상 신뢰 대상이 아니고 낮은 가격 조건도 유효하지 않으며 내년도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양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내 초·중·고교와 협약(2026.10.15)** -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가 위탁 운영하는 양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오창석)가 지난 9월 29일 범어초등학교·가양초등학교·사송고등학교에 이어 지난 6일 물금동아중학교와 탄소중립 학교 및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미래세대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 - 협약은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환경교육 의사를 밝힌 학교들과 개별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 및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하반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우선 배정,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및 전문 강사 연계, 학생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공동 활동 추진 등을 포함 - 센터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해당 학교들에 우선 배정하고 환경동아리의 창의적인 탄소중립 활동 지원과 환경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 내 산·학·민·관을 잇는 기후대응 거점기관으로서 2050 양산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과 시민 인식 개선 사업, 환경교육 등도 추진
	□ **인천환경공단, 그린파트너 연합봉사로 배롱나무 식재(2026.10.20)** - 인천환경공단이 20일 인천 계양구 방축동 일원에서 열린 '2026 그린파트너 하반기 연합 환경봉사 활동'에 자사 임직원이 참여해 도심 녹지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펼쳤다고 밝혔으며, 이번 봉사는 인천시와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대표 민관협력 환경 프로젝트 '그린상륙작전V'의 세부 사업으로 도심 녹색 공간 확장을 위해 마련 - '배롱나무로 그린(Green) 도시'를 슬로건으로 포스코이앤씨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약 230명이 참여했고 이 중 공단 임직원 15명이 배롱나무 600주 식재에 손을 보탰으며, 주변 환경 정화 작업과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기념식수 및 안내판 제막식도 함께 개최 - 활동 부지인 방축동 일대는 향후 시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지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ESG 사회공헌활동으로 초기 녹지를 구축하면 행정기관이 사후 관리를 맡는 '지속가능한 연계형 녹지 조성' 방식이 도입됐으며, 공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그린파트너십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공단의 전문성을 살린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건설연 · 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실증 협력(2026.10.1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기도 고양시 본원에서 SK이노베이션과 AI 데이터센터 분야 공동연구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으며, 협약식에는 건설연 박선규 원장과 SK이노베이션 김필석 환경과학기술원장 겸 CTO 등이 참석해 AI 데이터센터의 안전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에 합의 - 건설연은 구조·건축·환경·수자원·화재안전 등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실증 인프라를,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효율화와 냉각, 폐열 활용, 물 관리 등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어 양 기관은 보유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증 협력을 추진할 예정 - 협약식에 이어 열린 공동 워크숍에서는 데이터센터 폐열 관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더블월 시스템, 모듈러 데이터센터, 수열 활용에 따른 환경영향 및 열적 수용성, AI 데이터센터 무중단 운영을 위한 화재안전·기능회복 통합관리 등을 주요 협력 의제로 논의했으며, 향후 연구 범위와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할 계획
	□ **한전, 기상청과 AI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고도화(2026.10.15)** - 한국전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청과 '전력·기상 융합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고품질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 고도화에 나섰으며, 기후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 - 이날 행사에서 한전은 기상청 데이터를 융합해 자체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모델'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고 기상청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운용 현황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발전량 예측에 최적화된 기상 데이터 개선 방향과 신규 AI 융합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후속 과제를 모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전은 연내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에 돌입해 정확도가 검증되면 해외 기상 데이터 기반 모델을 단계적으로 국산화해 대체하고 전력 수요 예측과 기상 이변에 따른 설비 화재 위험 분석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며, 양 기관은 2022년 첫 업무협약 이후 올해 6월 협약을 갱신하는 등 협력을 지속
지방기관	□ **서울시교육청, 세종·충남·경북과 '채움AI' 협약(2026.10.15)** -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제주에서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으며, 협약에 따라 4개 교육청은 채움AI를 공유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공동으로 개발·검토하며 교원 연수 운영에도 협력 - 채움AI는 학생의 서·논술형 답안 채점과 피드백 제공 등을 보조해 교사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66개 실천학교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실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AI 채점의 신뢰도를 확인했고 올해는 실천학교를 135개교로 확대해 시스템 고도화와 정교화를 추진 중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부산·인천시교육청, 9월 전북·전남광주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총 7개 시·도교육청과 '채움AI' 공동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채움AI의 AI 채점 엔진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전국적인 서·논술형 평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 간 공동 연구와 교원 연수, 평가 자료 공유로 교사의 평가 전문성도 제고할 계획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대우건설, 탄소저감 콘크리트 탄소감축인증 심의 통과(2026.10.15)**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대우건설이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으며, 국내 건설사가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두 인증 심의를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주요 인증 단계를 완료 - 탄소감축인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제도로 방법론 인증, 사업계획서 인증,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제품 및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급하며, 이번 인증은 한양대학교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대우건설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축적한 시공 및 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추진 - 대우건설은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30만㎥를 현장에 적용하면 약 3만 2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남은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를 조속히 완료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고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사업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활용할 계획
기타	□ **대전상의, 탄소중립·기후테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026.10.20)** - 대전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3층 다목적강당에서 '대전기업 탄소중립·기후테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상의와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테크 산업 성장에 대응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 - 행사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CNCITY에너지 등 5개 기관이 발표에 나서 ESG 기업지원사업과 탄소중립 기업 지원정책, 기후테크 기업 육성제도 등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문충만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도 진행 - 대전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기업들이 ESG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대전상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 기업 현장에 필요한 지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소버린 AI 풀스택 공동 개발(2026.10.19)** - 오케스트로 클라우드가 지난 16일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에스피케이인크(SPK), 대원씨티에스와 'NPU 기반 소버린 AI 풀스택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으며, 5개사는 국산 NPU와 LLM, 클라우드·서버 인프라를 결합한 '소버린 AI 풀스택 어플라이언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 -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CONTRABASS)'와 Ceph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에 퓨리오사AI의 NPU 'RNGD', 업스테이지의 LLM '솔라(SOLAR)'를 결합하며, SPK는 서버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대원씨티에스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하는 구조 - 5개사는 공동 개발한 풀스택 어플라이언스를 상용화하고 구축 이후 운영과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도 개발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영업·마케팅과 개념검증(PoC), 벤치마크 테스트(BMT), 공동 제안 등을 추진하고 국산 NPU와 LLM을 활용해 해외 GPU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
	□ **베슬AI, 2030년 GPU 20만장 확보 추진(2026.10.15)** - 국내 AI 인프라 기업 베슬AI의 안재만 대표가 15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네오클라우드 전략 발표회에서 에이전트 AI 확산과 멀티모달·피지컬 AI 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델 등장, 국가별 소버린 AI 구축 경쟁 등으로 AI 컴퓨팅 수요가 급증했다며, 2030년까지 총 20만장 규모의 GPU 연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2020년 창업 당시 MLOps 개발에 집중했던 베슬AI는 2024년부터 GPU 컴퓨팅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장했으며, 분산된 GPU 자원을 하나의 컴퓨팅 풀처럼 연결하는 '플루이드 컴퓨팅'을 핵심 기술로 내세우고 연간 계약 기준 매출 규모를 현재 1300억원 수준에서 올해 말 2500억원, 2027년 7000억원, 2028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 현재 약 7000장인 GPU 운영 규모를 올해 말 1만장, 2027년 5만장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국내에서 500㎿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약 8곳의 데이터센터와 협의 중이며, 자금 조달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GPU 파이낸싱과 내년 2조원 규모의 추가 파이낸싱,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추진
	□ **현대차그룹, 인도에 2032년까지 155억달러 투자(2026.10.14)**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에서 열린 푸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인도에 2032년까지 155억달러(약 20조8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메이크 인 인디아'를 넘어 현지 설계와 기술혁신까지 확대해 인도를 글로벌 생산·수출 및 R&D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 -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신규 생산시설 구축과 R&D 역량 강화, 현지 공급망 확대, 미래 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그룹 차원의 투자사업을 발굴·조율할 전담 법인 설립도 추진하며, 정 회장은 푸네공장 준공식을 현대차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제 '디자인 인 인디아', '이노베이트 인 인디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 - 정 회장은 인도가 지난 30년간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 핵심 축이었다며 앞으로는 자동차를 넘어 AI와 로보틱스, 미래 에너지(수소) 등으로 투자를 넓혀 인도와 함께 발전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고, 취임 6주년 소감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발전시켜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제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영남이공대, 생성형 AI 취업지원 웹앱 개발 특강(2026.10.20)** - 영남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9일 교내 천마스퀘어에서 교직원과 취업지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AI 활용 취업지원 업무 웹앱 개발 특강'을 개최했으며,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와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을 중심으로 진행 - 강사로 나선 조형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임컨설턴트가 바이브코딩의 기본 개념부터 웹사이트 제작과 데이터 연동, 배포 방법 등을 설명했고, 참가자들은 AI 언어모델(LLM)과 구글 앱스 스크립트, 깃허브, 클라우드플레어 등 개발 도구 활용법과 프론트엔드·백엔드의 차이, 구글 시트와 연동한 웹앱 제작·배포 과정을 학습 - 영남이공대는 이번 교육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와 만족도 조사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교직원들이 외부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웹앱을 직접 제작·수정하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성금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해외	□ **틱톡, AI 광고·틱톡샵 韓기업 성장전략 공개(2026.10.15)** - 틱톡이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브랜드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비즈니스 행사 '틱톡 서밋 코리아 2026'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운영 자동화부터 틱톡샵을 통한 유럽·일본·동남아시아 해외 판매까지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을 한자리에서 공개할 예정 - 올해 행사에서는 AI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이 주요 화두로 다뤄져 생성형 AI 솔루션 '틱톡 심포니'를 활용한 광고 소재 제작과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5' 시연, 캠페인 운영·최적화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플러스(Smart+)', 마케팅 업무 전반을 연결하는 '틱톡 에이전틱 AI'의 발전 방향 등을 소개할 예정 - 글로벌 커머스 세션에서는 K뷰티 브랜드의 영국 시장 확대 방안과 동남아시아 5개국 직접 배송 'KR 다이렉트 쉬핑', 일본 대상 크로스보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며, 시치 우 틱톡코리아 제너럴 매니저는 한국 기업들이 틱톡 솔루션과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각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